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트럼프 재임으로 미국 경제 전망은?
- WSJ: 연준이 대선 이후 직면하는 문제들은?

[미국 금융]

- Bloomberg: 트럼프 당선 직후 미 금융 시장 활기
- WSJ: 트럼프 당선 후에 오일 가격 하락

[미국 대선]

- WSJ: 공화당, 상원도 장악
- WSJ: 트럼프 승리에서 배우는 5가지 교훈

[미국 무역]

- Bloomberg: 미 대선 결과, 무역에 불확실성 예상된다
- Bloomberg: 중국은 트럼프 승리에 대비한다

[에너지]

- Bloomberg: 트럼프 승리가 에너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 WSJ: 미국의 친구와 적대 국가들, 트럼프 시대를 대비한다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율,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베팅, 트럼프 승리로 수혜
- Bloomberg: 아마존, 강력한 실적 발표로 랠리 가속화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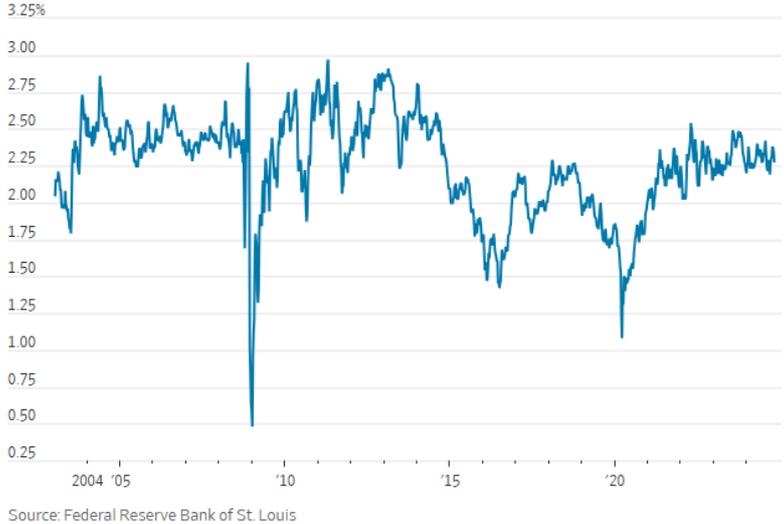
WSJ: What Trump's Win Means for the Economy

트럼프 재임으로 미국 경제 전망은?

- 트럼프의 재임으로 경제 어젠다는 높은 관세와 낮은 국내 세율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 특히 높은 관세는 트럼프 1기 재임 때 보다 더 큰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 개인 및 기업 세금 감면은 경제를 일시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역시 연방 예산 적자 확대와 고금리 압력을 일으킬 수 있다.

Markets See a Higher-Inflation World Than in 2016

Expected inflation in five to 10 years, based on spread between regular and inflation-indexed Treasury securities



WSJ 기사

WSJ: Fed Readies a Rate Cut and Faces These Four Questions
연준이 대선 이후 직면하는 문제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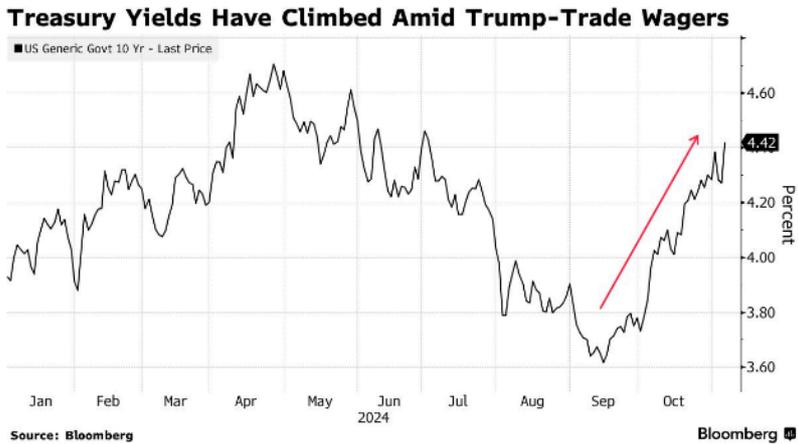
- 연준이 이번 주에 금리를 0.25%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향후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일자리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느냐이다.
- 연준이 향후에 의미 있는 금리 가이드를 제공하기 어렵게 하는 4가지 문제가 있다.
- 첫째, 미 대선 결과가 다른 정책 경로를 요구해 경제적인 수요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바뀔 수 있다.
- 둘째, 노동 시장 악화가 과장됐는지 아닌지 우려가 있다.
- 셋째, 인플레이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점이다. 인플레이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일부 연준 관리들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이자고 할 수 있다.
- 넷째, 적절한 금리 수준이 어디쯤일까 하는 것이다. 지난 2년간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연준은 금리를 '정상치'로 내리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먼저 정상적인 금리 수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From Dollar to Stocks, Trump Trade Erupts Across Markets
트럼프 당선 직후 미 금융 시장 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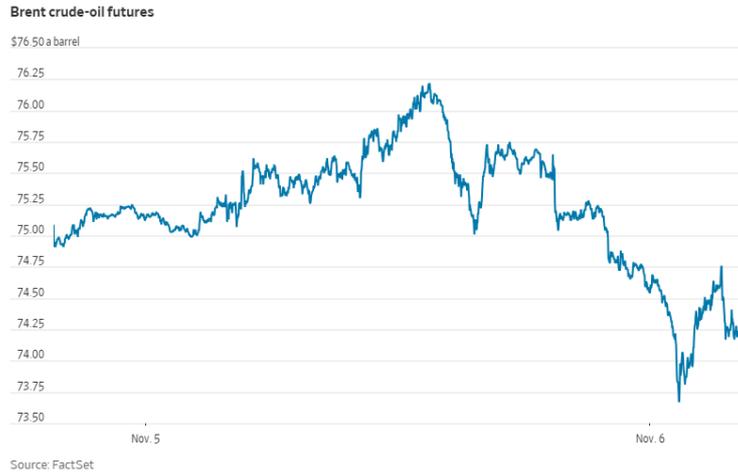
-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 금융시장에서 S&P 500 2.3% 상승 등 주식이 급등하고 있다. 달러 지위도 2020년 이래 주요 통화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채 기준 금리도 거의 20%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다.
- 투자자들은 트럼프 재집권 기간에 감세 정책, 규정 철폐, 관세 인상으로 인해 경제 성장은 물론, 기업들의 수입과 인플레이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물론 이 같은 긍정적인 전망과 동시에 우려도 있다. 국채 금리의 급등은 트럼프의 향후 정책이 연방 재정 적자를 가져오고 인플레이 압력을 가져올 수 있다. 30년물 국채 금리는 23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4.67%로 상승해 지난 2020년 이래 하루 단위로는 가장 큰 상승을 보였다.



Bloomberg 기사

WSJ: Oil Prices Drop After Trump Victory
트럼프 당선 후에 오일 가격 하락

- 트럼프 당선 소식에 오일 가격이 하락했다.
- 글로벌 원유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거의 2% 하락해 배럴당 74불 바로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도 하락했다.
- 트럼프는 캠페인 시절에 환경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오일과 천연 가스 생산을 독려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 많은 공급은 가격을 떨어트린다.
- 일부 투자자들은 또한 트럼프 재임 시 청정에너지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개선 정책이 일부 철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되돌려 놓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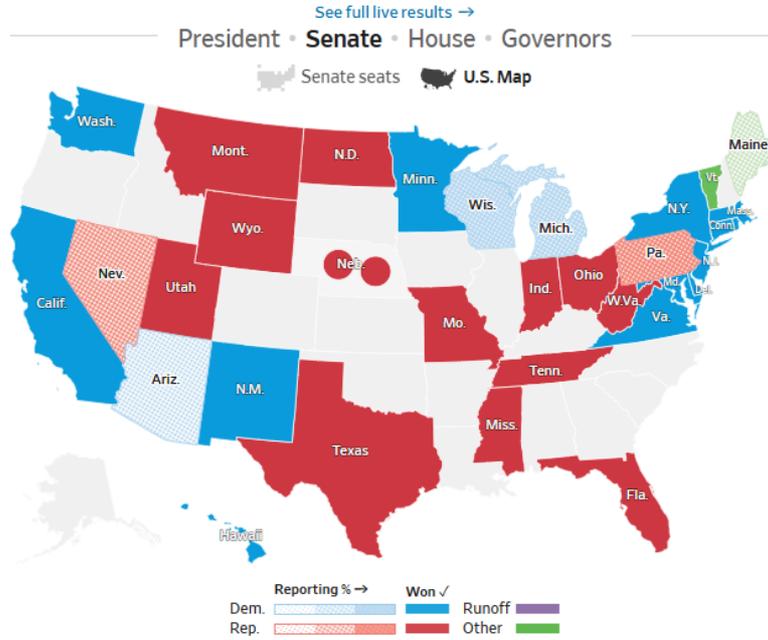


WSJ 기사

[미국 대선]

WSJ: Republicans Take the Senate 공화당, 상원도 장악

- 트럼프의 공화당은 웨스트 버지니아, 몬태나, 오하이오에서 연방 상원 의석을 차지했다. 또한 플로리다와 네브래스카, 텍사스에서의 도전을 물리치면서 상원을 장악했다.
- 공화당은 이미 상원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얼마나 큰 상원 다수당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 공화당 상원의원인 John Barrasso는 새로운 상원 다수당으로서 공화당은 미국의 우선순위 의제인 물가 인하, 지출 감소, 국경 안전,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오늘 수요일 오전 현재 민주당은 예전에 바이든이 3% 미만으로 승리한 5개 격전 주에서 선전했다. 이곳은 애리조나,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위스콘신이다.



WSJ 기사

WSJ: Five Surprising Things We Learned From the 2024 Results
트럼프 승리에서 배우는 5가지 교훈

- 트럼프는 당초 양 후보의 접전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크게 승리했다. 특히 경합주에서 연달아 승리했다. 많은 미국인들은 지난 2021년 의회 사건으로 그의 정치적인 경력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었다.
- 공화당은 안정적인 상원 다수당이 됐다. 이로써 트럼프는 좀 더 수월하게 내각을 구성하고 세금 정책 변경과 같은 법들을 통과할 수 있다. 아직 하원을 누가 통제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수월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다.
- 이번에 공화당의 좋은 성적은 트럼프가 젊은 남성 유권자에게 다가갔기 때문이다. 18-29세 남성 유권자의 54%가 트럼프 쪽에 투표했다. 해리스는 43%에 불과했다.
- 민주당은 도시에서 지지를 일으키는 데 실패했다. 트럼프는 농촌과 교외 지역에서 지지율을 키운 반면, 해리스는 그녀의 도시 지지율과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
- 교육적인 격차가 컸다. 학위가 없는 유권자들은 공화당 쪽으로 이동했다.

WSJ기사

[미국 무역]

Bloomberg: US Election Jitters Stoke Trade Uncertainty: Bloomberg Tracker
미 대선 결과, 무역에 불확실성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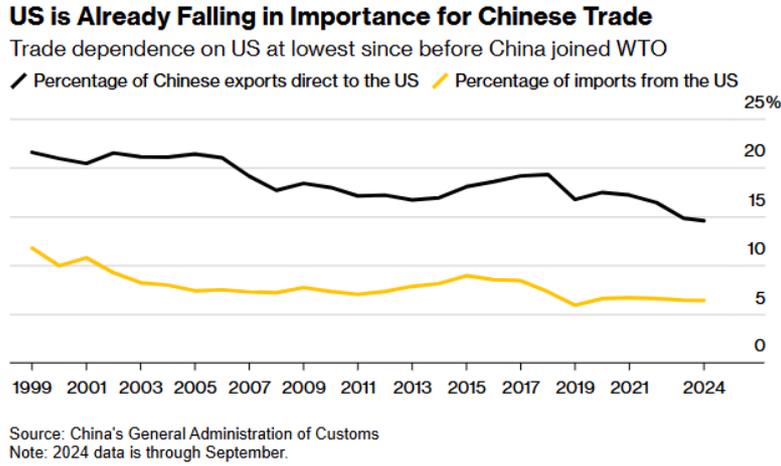
- 블룸버그의 무역 관찰 지표는 국제 무역의 10개 핵심 항목 중에 6개를 정상 수준으로, 3개를 정상 수준 아래로 보았다. 이는 지난 5개월 동안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 트럼프의 모든 수입품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왔다. 상품 교역은 이미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 다양한 품목의 생산성 면에서 글로벌 수요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의 경우 지난 10월 첫 몇 주 동안에 수출이 1% 상승했다. 지난달 7.5% 상승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홍콩의 화물 운송도 지난 2월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Xi Is Better Prepared for Trump Even as 60% Tariffs Risk Chaos

중국은 트럼프 승리에 대비한다

- 2018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됐을 때, 중국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2024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는 기존 바이든 정부의 중국 규제에 더해 60%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공약했다.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수석 고문 Scott Kennedy는 “중국 정부가 중국과 큰 이해관계를 맺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대응, 미국 국채 매도, 위안화 평가절하, 그리고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와의 외교적 활동 강화 등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와 거래할 준비를 마쳤으며, 필요하다면 강 대 강으로 맞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중국의 미국 농수산물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옥수수과 대두가 있다. 2016년 미국이 중국의 대두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했지만, 올해 첫 9개월 동안 18%까지 떨어졌다. 이제는 브라질이 중국의 대두와 옥수수 수입의 최대 공급국이다. 즉, 중국의 미국 수입 의존도가 줄어들었다.
-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도 높다. 2018년 무역 전쟁 당시 중국은 위안화-달러 환율을 7.2까지 떨어트려 수출 가격을 낮췄었다.
- 중국의 수출 규제도 가능하다. 지난해 중국은 갈륨과 저마늄 수출을 제한했다. 두 금속은 반도체 제조, 통신 장비, 방위 산업 등에 널리 사용된다.
- 중국 정부는 현재 트럼프와의 협상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세계화 연구 센터(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research group) 설립자인 Henry Wang Huiyao는 트럼프는 실용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 투자에 개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

Bloomberg: From Oil to EVs, Here's What a Trump Victory Means for Energy

트럼프 승리가 에너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

- 2024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미국 에너지 및 환경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석유, 풍력 발전, 전기차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 정책과 인플레이션법(IRA)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싶어 한다.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더 많은 석유를 시추하고, 액화 천연가스(LNG) 수출 허가 중단을 끝낼 계획이다.
- 트럼프는 발전소에 대한 환경보호청(EPA)의 배출 규제도 종료하겠다고 약속했다. AI 덕분에 더 많은 전력량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 트럼프는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차량 배기가스를 제한하는 환경 보호청의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 해상 풍력 발전도 트럼프의 공격 대상이다.
-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프로젝트와 기업이 세액 공제를 받거나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재검토하고, 그 혜택을 빼앗을 수 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은 혜택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WSJ: America's Friends and Foes Brace for a New World Under Trump
미국의 친구와 적대 국가들, 트럼프 시대를 대비한다

- 2024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미국의 경제 정책과 국제 관계 정책 변화에 미국의 동맹국과 적국 정부가 대비하고 있다. 상원도 공화당이 장

악하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 인상, 방위비 인상 등을 공약했다.

-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르게 종식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이 끊기거나 영토를 양보하는 협상을 해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 약 20%를 점령하고 있다.
- 이미 긴장 상태인 중국과의 관계는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었다. Oxford Economics에 따르면 이 경우 미·중 무역이 70% 감소하고, 중국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이 2023년 14%에서 4%까지 떨어질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내수 시장 부진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 중동, 특히 이란에 대해선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 트럼프는 강하게 비판해 왔다. 최근 몇 년간 유럽의 군사 지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것이 트럼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압박에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럽연합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 한국은 바이든 대통령 당시 미국의 반도체, 전기차, 청정에너지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덕분에 2024년 상반기 한국의 미국·한국 무역 흑자는 작년보다 55% 증가한 약 290억 달러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 하지만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또한 트럼프는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WSJ 기사

[주택]

Bloomberg: US Mortgage Rates Rise Again, With Recent Jump Most in Two Years

미 모기지율,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미 모기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30년 만기 모기지율은 11월 1일 주간에 8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6.81%를 기록했다.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 5주 동안 모기지율은 67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다.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 최근 몇 주간 트레이더들은 트럼프의 2024 대선 승리를 예측했다. 이 예측에 따라 모기지율도 상승했다.
- 강한 경제 지표로 연준이 금리를 충분히 인하할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수익률도 상승했다. 이번 주 목요일 연준 회의에선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채용자 지수는 6주 연속 하락해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 4월 이후 가장 긴 하락세다. 주택 구매 지수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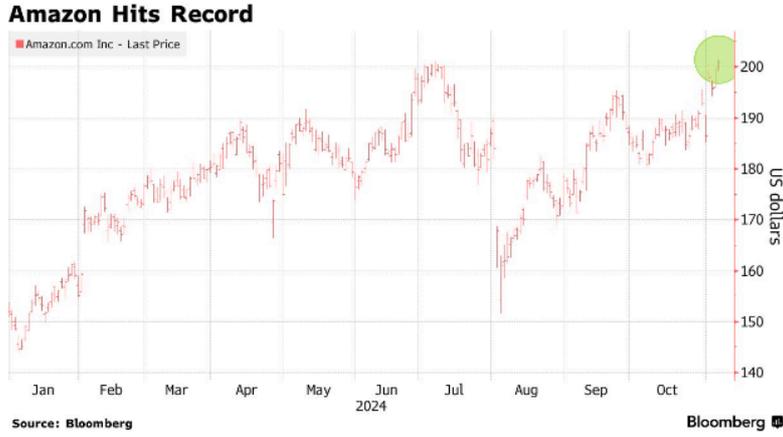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Toyota's Bet on Hybrids Looks Even Better Under Trump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베팅, 트럼프 승리로 수혜

-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베팅이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전기차 촉진을 위한 정책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으로 보이며 대신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요는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이미 미국에선 순수 전기차(EV)에 대한 관심이 식으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JP모건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월 미국 자동차 판매의 11.4%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8.7%였다.
-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비율은 도요타의 글로벌 차량 판매의 44%를 차지한다. 또한 도요타의 많은 모델이 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높은 관세 공약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Bloomberg: Amazon Hits Record After Strong Results Accelerate Year's Rally
아마존, 강력한 실적 발표로 랠리 가속화

- 아마존 주가가 수요일 거래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마존 주가는 1% 상승한 201.45달러를 기록했다. 8월 저점에서 25% 상승했으며, 올해 32% 상승했다. 미국 대선 이후 주식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 아마존은 이번 분기 강력한 실적을 발표했다.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인공지능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 아마존은 월스트리트에서 만장일치로 선호되는 종목이다. 블룸버그 추천 전문가 약 94%도 아마존 매수를 추천한다. 분석가들은 아마존 주가가 평균 목표보다 15% 낮게 거래되고 있어, 향후 12개월 동안 계속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트럼프 재집권] 치솟는 환율·금리...1,420원 전망까지
 관세인상→물가상승→금리인하 조기종단 관측 영향...한은 추가인하에도
 걸림돌
 안전자산 선호 전망에 주가는 하락...트럼프 '親가상자산' 기대에 비트코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면서, 6일 원/달러 환율과 시장금리가 일제히 뛰었다.

관세 인상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되면 물가, 인건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도 더뎠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연내 원/달러 환율이 1,420원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